

병마와 싸우는 현음이를 도와주세요

백혈병 학생 돕기 위해

추산초교 학부모 일일찾집 열어



▲추산초교 아람단 지미정 회장, 김기호 예·체능진흥회 감사(이상 앞 줄 왼쪽에서부터), 김연희 예·체능진흥회 총무, 홍삼선 추산초교 교장, 변진수 교육장, 김찬미 어머니회장, 나복현 선단초 운영위원장, 한선희 어머니회 총무, 윤애자 선단초 어머니회장. (이상 이랬줄 오른쪽에서부터)

작은 정성이 큰 사람을 이뤄 냅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해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 정성의 손길을 모으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삼선) 어머니회(회장 김찬미)와 예·체능진흥회(회장 최두열)는 15일 송우리 사이판 노래방에서 추산초교 박현을 학생을 돕기 위한 일일찾집을 열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박현을 학생은 지난해 처음 발병해 입원과 퇴원을 번갈아 가며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아버지와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 어머니와 병환 중인 할머니까지 모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추산초교 어머니회와 예·체능진흥회가 일일찾집을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박현을 학생에게 기탁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추산초교 김찬미 어머니회장의 노래방에 자리를 마련한 것.

또 일일찾집 운영에 따른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임원 개인당 냉커피 2병씩을 직접 준비하

게 했으며, 기타 지출은 어머니회와 예체능진흥회에서 자체 해결했다.

이날 일일찾집을 방문한 변진수 교육장은 포천의 중심학교로 발돋움하는 추산초교 학부모들이 솔선수범해 이런 좋은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감사드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최두열 추산초교 예·체능진흥회장은 우리학교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음이 학생이 어서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에 대해 홍삼선 추산초교 교장은 빗물이 쉴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약값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우리 학부모들이 할 것 없어 부치고 도와주니 현음이가 머지않아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일찾집의 수익금 891만 4천240원 전액은 박현을 학생에게 18일 전달했다. (일일찾집 결산보고는 본지 제9면 광고 참조)

도움 주실 분: 204065-52-189688(농협, 예 김주 박현을)
 문자연 기자 soma7000@naver.com

우리 학교 최고

신북초교편

자연과 이웃의 소중한 만남

지난 1934년 신북면 신령리에 신북보통학교(4년제)로 개교한 신북초교는 남을 배려하는 신북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신북초교의 중점 교육 분야를 살펴보자.

#신북 한마음 가족캠프

#“나비 보러 오세요”



요즈음 마음을 터 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갖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신북초교는 갈수록 메말라 가는 가족이웃 간의 정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북 한마음 가족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캠프는 토요일 오후 임소식과 기념촬영으로 시작된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탁구공 이어받기, 2인 3각, 줄다리기 등의 게임을 펼친다. 가족 놀이 한마당 시간에도 전력을 다해 뛰고, 응원하고 땀을 닦아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된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양념하고 솜씨를 발휘해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요리를 준비한다.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 시간에는 그동안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오해를 풀고 함께 눈물 흘리는 가슴 정한 감동의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런 감동은 각 가족의 천막까지 이어진다. 천막 속의 대화를 통해 내가 바라는 아들딸, 내가 바라는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에는 간단한 산행과 신북퀴즈열전 등이 마련되며 폐영식을 끝으로 캠프는 마무리된다.

지난해 참가한 가족들로부터 호응이 너무 좋아 올해는 참여 가족 수를 늘렸다. 또 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교사와 가족을 맺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배려했다.

신북초교 교감은 가족끼리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적은데 가족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에는 코끝이 찡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기심만 갖고 있다가 관찰하면서 지적인 충격을 느끼며 아이들이 갖는 성취감도 커진다 라고 말했다.

이에 신북초교는 현재 조성중인 체육공원 옆에 자그마한 공간을 이용해 온실로 된 나비사육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들 전원이 나비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밖에도 신북초교는 매년 어린이날 타 학교와 달리 독특한 행사를 갖는다. 기존의 체육대회 행사에서 벗어나 비눗방울 기네스, 날아라 로켓 등의 과학체험학습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가족, 이웃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교육하는데 앞장서는 신북초교,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는 학교가 아닐 수 없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윤중성의 미국어 따라가기

저는 이만 가야겠어요.
Let me get going
햇미 갓고잉

I have to get this car washed.
아이해브투웬디스카워시

이세뢰이?

*세차도 해야겠고.

그리세요?
Is that right?

☎문의: 윤중성
(017-723-4977)jooyoon@nate.com



수필가 김창종의 현대시 감상(67)

장미가 곱다고
꼭여 보니까
꽃포기마다
가시입니다
사랑이 좋다고
따라가 보니까
그사람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모든 사람은
가시의 장미를 꺾지 못해서
그 눈물사랑을 얻지 못해서
설다고 설다고 부르는구려

노자영 “장미”

김상=해설

1898년 평남에서 출생해 1940년 작고한 노자영님은 호가 춘성이었으며 일본 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한 신문화 여명기의 인텔리 시인이었다.

신인문학을 주재했으며 '처녀의 회환', '백공작', '사랑의 불꽃' 등의 시집을 남겼으며 '무한애의 금상', '인생안내' 등의 소설이 있으며 그 밖에 번역 소설집이 있다.

노자영의 시 "장미"를 통해 4?50년대 지식인들은 사랑을 장미꽃에다 비유하는 시와 수필을 많이 썼으며, 특히 아름다운 여성일수록 장미의 가시와 같은 고고한 자기 본능의 미를 지녔다고 여성찬미를 아끼지 않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명기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멋쟁이 지식인들의 행렬이 조국의 광복을 고대하여 울분과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필자 연락처 02)832-2434





맛이 깊은 집 송우리점

다림방

542-6429 • 542-7274



맛이 깊은 집
송우리점

국수 · 돈가스 전문점

다림방

신속배달

031)542-6429

031)542-7274